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 경산시와 농지 임대수탁사업-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 체결

✎ 김철희 기자 | ㉠ 승인 2024.10.29 10:04



28일 경산시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권익현 경산청도지사장(왼쪽서 두번째)과 조현일 경산시장(왼쪽서 세 번째).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 제공

[대구=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북 경산청도지사(지사장 권익현)는 28일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증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경산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익현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장과 조현일 경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농지를 공사에 위탁해 임대차 계약을 시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과 개인이 경산시에 기부하고, 그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접목한 '고향을 잇다' 캠페인 추진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경산시에 토지를 소유한 부재지주가 농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고향사랑기부제를 알게 되고, 기부로 이어지게 된다면 기부금 증가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익현 지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사에 방문한 농지 임대인들에게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하고 경산시와 함께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면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180만원을 기탁하고, 경산시 교육정책 확대를 위해 장학금 300만원도 전달했다.



김철희 기자 chk1500@naver.com